



[경제종합]
50조 민간투자 실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이룬다
03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335.22 (+41.61) ↑ 코스닥 700.05 (+4.72) ↑

금리 (국고채 3년) 4.068 (-0.117) ↓ 환율 (원·달러) 1417.20 (-7.10) ↓ (1일)

돈줄 막히자 은행으로 가는 기업 대기업 대출만 한 달 새 7조 증가

〈전체 증가액의 70.2%〉



유품 찾고 오열하는 가족들

1일 서울 용산 원효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관련 유실물 센터에서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의 유물을 찾고 오열하고 있다.

/뉴스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사상 처음 750조 돌파

高금리에 실적 악화 더해
한계기업 부실폭탄 우려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사상 처음 75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찾는 기업들이 급증한 탓이다. 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대 시중은행 기업대출 700조 돌파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 잔액은 10월 말 기준 757조70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688조1896억원)과 비교하면 10개월 새 69조 515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693조647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올 들어 가계대출은 15조원 넘게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매달 평균 6조9000억원씩 증가

했다.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환율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대기업들까지은행으로 눈을 돌렸다.

실제로 대기업 대출잔액은 107조1474억원으로 한달 사이 7조 204억원이 늘어 기업대출 증가액의 70.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650조5580억원으로 2조9799억원 늘었다. 채권발생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은행을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계기업 14.9→18.6% 증가
… 부실우려 커져

다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대출이 늘고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35개 주요국 중 2위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메트로미디어 '제7회 뉴테크놀로지포럼'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초거대 AI의 미래 전략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최대 이슈는 초거대 AI 개발과 가상인간입니다. 비테크 기업들도 초거대 AI 모델과 AI 언어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검색, 비서, 쇼핑 등에도 초거대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 휴먼 등을 구현하는 기술인 XR(가상융합) 형태의 메타버스 경제 생태계 및 관련 산업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확장현실(X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블록체인 등 범용 기술의 복합체입니다. 이처럼 AI와 메타버스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AI, 메타버스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AI의 개발 흐름과 기능, 가상인간의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메타버스 및 AI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략을 세우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 주 제 : 초거대 AI, 가상인간과 메타버스
-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강 연 : 김정대 동양대학교 게임학과 교수, 김영준 SKT A.(에이닷) 대화 담당,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AI 협력팀 상무, 윤영진 네이버 AI사업개발 리더, 유지형 제네시스랩 기업부설연구소 AI연구원장,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사전등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 의 : 2022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26, forum@metroseoul.co.kr

*상기 일정 및 후원, 강연 등의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metro[®]

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中위축·반도체값 하락 등 영향... 수출도 감소

외환위기 후 최장기간 적자
수출도 2년 만에 마이너스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2년 만에 꺾인 반면,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로, 1997년 5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이어졌다. 〈관련기사 2면〉

수출은 2020년 10월 -3.6% 이후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러·우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된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

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 실적(557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15개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차부품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차·이차전지는 역대 10월 중 1위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

율을 유지하며 7월부터 45억달러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한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다.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최근 수입규모가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수출과 중간재수입수요가 감소한 아세안 수출 등은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인플레이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

로 대폭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57.2%)와 스마트폰 등 전화기 (+8.9%)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둔화와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기반 수출강국의 공통현상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일본과 독일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에서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했다.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올해 7월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흐름이 관측된다.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탄산리튬,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원료가 포함된 정밀화학원료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태원 참사 사망자 1명 늘어 156명...
부상 111명 귀가

▲尹 대통령 "바이든·기시다·시진핑 등
각국 정상 애도에 감사"

/사진 뉴시스

▲ 한총리 "많은 시민 큰 충격... 심리상담...
치료 적극 지원"

▲ 정부,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
안국 4년만에 참여 확정



▲ 이재명 "정부 무능·불찰로 인한 참사...
당연히 책임 따져야"

/사진 뉴시스
▲ 이상민 "유가족·국민 마음 살피지 못
해 사과"